미국 헬스케어 비용 투명성을 위한 규정 발표

김혜란 연구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11월 헬스케어 비용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음. 이 규정에 의해 소비자와 고용주는 헬스케어를 받기 전에 병원 및 보험회사에 상호 간 개별적으로 협상한 요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헬스케어 비용을 요구할 수 있음. 당국은 비용 투명성의 증대로 헬스케어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병원과 보험회사는 헬스케어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의 이유로 이 규정을 반대하고 있음

■ 미국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재무부에서는 2019년 11월 헬스케어 비용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음[1)]

- 이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헬스케어 비용 및 품질 투명성 개선 명령에 의한 정책의 일환으로 병원과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비용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임
  - 트럼프 행정부는 환자 최우선주의에 입각하여 환자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기 전에 비용을 알 권리가 있으며, 진료기록은 환자에게 속한다고 생각하는 등 국민들에게 헬스케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9년 초 미국 보험청은 국민이 자신의 청구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고, 메디케어 어드벤티지(Medicare Advantage), 메디케이드(Medicaid) 및 건강보험을 통해 환자가 전자형태(Electronic Format)의 청구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2)]

■ 이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기 전에 병원(의료시설 포함) 및 보험회사에 헬스케어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병원과 보험회사가 서로 협상한 비용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음[3)]

- 헬스케어 비용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정은 병원을 시작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보험회사에까지 적용할 예정임

---

1) Willis Towers Watson(2019. 11. 27), “Proposed regulations designed to increase health care cost transparency”
2) 의료기기뉴스라인(2019. 8. 19), “미국 보험청이 밝힌 트럼프 행정부의 헬스케어 정책 방향”
3) Modern Healthcare(2019. 11. 15), “Trump administration unveils new price transparency rules”

- 병원 헬스케어 비용 투명성에 대한 최종 규정은 이미 발표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병원은 300개의 특정서비스에 대해 표준의료비용을 온라인에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게시해야 하며, 특히 보험회사와의 협상 요금을 공개해야 함
  - 협상요금은 병원이 개별적으로 보험회사와 협상하는 것으로서 의약품, 시설비용 및 시설에서 일하는 의사의 치료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요금임[4]
- 보험회사들에 대한 헬스케어 비용 투명성 규정이 제안되었으며, 현재 제안된 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모든 의료 항목 및 서비스에 대해 본인 부담비용 추정치를 인터넷 기반 자체 서비스 기술을 통해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제안된 규정은 이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음
  - 이 규정은 종업원 건강보험(Grandfathered Health Plans),[5] 단기보험(Short-term, Limited-duration Insurance)[6], 예외급여(Excepted Benefits)[7] 등을 제외한 직장인건강보험에 적용됨
  - 보험회사는 기본분담금 및 가입자 분담금, 병원과의 협상 요금 등 가입자 부담 최대 한도액(Out of Pocket Cost)과 보험회사와 계약된 의료제공자(In-network)와의 요금 및 계약된 의료제공자 이외의 의료제공자(Out-network)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밝혀야 함

당국은 비용 투명성의 증대로 소비자와 고용주의 선택의 폭을 넓혀 헬스케어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병원과 보험회사는 오히려 헬스케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 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 당국은 소비자들과 고용주들이 헬스케어 비용과 혜택 등을 투명하게 비교함으로써 보험회사와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잠재적으로는 병원과 보험회사의 경쟁에 의해 의료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재 전국병원협회를 포함한 병원들은 새로운 규정은 위헌이며, 오히려 보험회사들이 가격을 고정하기 위해 협력하여 헬스케어 비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8]
- 보험회사들은 이 규정이 현실화 될 경우 서로 경쟁사보다 더 큰 프로모션을 제공하다 결국 가격이 크게 인상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음[9] kiri

---

4) WSJ(2019. 11. 15), “Trump Administration Releases Transparency Rule in Hospital Pricing”
5) 오바마 건강 보험 개혁법의 시행일(2010년 3월 23일) 이전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종업원 건강보험임
6) 개인이 이직할 때와 같이 건강보험을 전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건강보험임
7)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요 건강보험에 통합되지 않는 보험 또는 자가 보험제도임
8) Modern Healthcare(2019. 11. 15), “Trump administration unveils new price transparency rules”
9) WSJ(2019. 6. 20), “Trump to Issue Executive Order on Health-care Price Transparency”